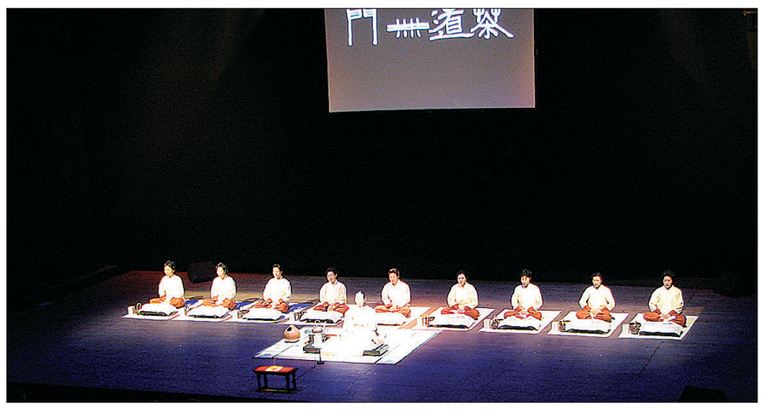
"茶道는 자기 돌아보는 수행"


2006년 한불수교 120주년기념행사로 반야로차도문화원은 파리 께브랑리국립민속박물관 레비스트로 극장에서 공수선차도 시연을 했다.


오른쪽부터 채원화 원장, 효당 스님, 연세대 황원구 · 고성환 교수(1969년)


차도를 강의중인 채원화 원장.



반야로차도문화원은 2013년 30주년 기념식 및 효당차문화상을 제정 수여했다.


지리산 끝자락 차밭에서 제차하는 채원화 원장의 모습.



'실상을 깨닫는 지혜의 이슬'을 상징하는 '반야로' 차

월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지리산 끝자락 반야로 차밭에서 큰 가마솥을 걸고 장작불을 지펴 일일이 손으로 직접 정성을 다하여 차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0여년 동안 120여 제자를 길러왔는데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하다. "3기생까지는 만 10년을 배워야 수료를 해주었어요. 차도 개론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동차송, 차신전 등 차서 원전과 초발심자경문, 치문, 행차법 등의 강의를 전부 다 교육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니 교육은 매우 엄격히 이루어지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가르친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는데 교육 과정이 워낙 깐깐하다보니 그런 소문이 났나봐요. 수료 과정이 너무 길다는 얘기가 많아 요즘에는 교육 과정을 3년으로 압축했어요."

반야로 차도 교육과정은 총 네 과정으로 나뉘는데 △제 1과정은 '수식관, 차도개론, 차서원전 강독' △제 2과정은 수식관, 생활차법, 선차법, 재차지 견학실습, 선사어록 △제 3과정은 수식관, 다양한 선차법 수련(공빈, 말차, 헌공) △제 4과정은 수식관, 선시어록, 기타 심학서 강독, 문화 탐방으로 나뉠 수 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 닦는 공부입니다. 모든 공부는 궁극적으로 마음 닦는 공부로 귀결이 되죠. 심학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에는 끝이 없습니다만 현실성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기 공부로 나누어 차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과 실기로 잘 다져진 반야로차도문화원의 회원들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차문화를 알려나가는 데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한양 정도(定都) 600년 기념사업 '전통차계승자'로 선정 △중국 선차 유적답사 진행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반야로선차도 시연 △한국차도문화예술제 개최 △파리주불한국문화원 초청 한국전통차도 문화행사 개최 △효당 최범술 스님 추모학술대회 개최 △한 · 불 수교 120주년기념 초청공연 △벨라루스 국립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공연 및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ISAA '러아대학 한국어교수 협의회' 창립기념 초청공연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 및 효당 차문화상 제정 수여 및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 발간 기념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개원 30주년을 맞아서는 '효당 차문화상'을 제정하고 효당 문집을 발간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총 3권으로 구성된 효당 문집은 효당 스님이 발표한 학술논문과 기고문, 문화와 차도, 효당 스님 관련 논문집과 제자들의 추모 글 등을 모은 것이다.

"올해 11월에 제15회 수료식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한국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업적 있는 분을 선정해 제2회 효당차문화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효당 스님의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불교 분야 활동 중 원효 교학 분야, 정치사회 및 차문화 등 스님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조명한 연구집을 단행본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여력이 있다면 효당사상연구회와 반야로차도문화원을 법인화하여 많은 후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장으로 환원시키고 싶습니다."

차를 만들 때는 매일 목욕재계하고 108배하며 "내가 정성껏 만든 이 차를 마시는 이들이 제불보살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의 모든 병고액난이 소멸되고, 청정한 법열을 얻고, 무상의 환희심을 얻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올린다는 채 원장.

차를 달여 마시며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일체감을 체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선의 견성이라고 말하는 그는 결국 차도는 인생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사람의 일생은 계속 영광스러울 수 없고 또 계속 고달프기만 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희노애락도 참고 견디면서 살아내야 성숙할 수 있잖아요. 차 또한 물과 불을 잘 다스려 그릇이 깨지지 않게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차를 여러번 우려먹으면 고였던 물이 씻겨 내려가듯 번뇌가 씻겨 내려가며 오묘한 맛 즐거운 맛을 알게 돼요. 정신이 깨어나고 울기를 풀어주죠."

이렇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변을 챙기게 된다. 그래서 차도는 삶의 충전이고 자기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가정과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차도는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차를 통해 도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채원화 원장은 오늘도 우리의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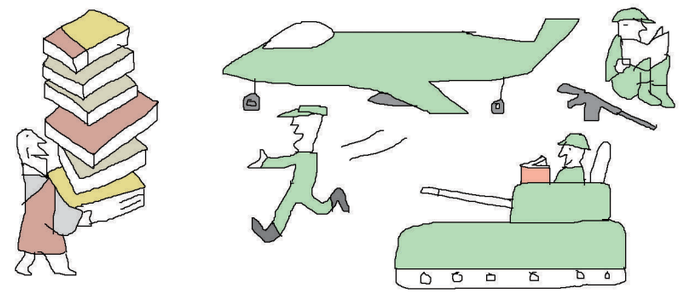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책 읽는 병사들에게 다가가다

100여 명의 병사들이 긴장된 마음으로 한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원빈 스님은 원빈보다 잘 생겼다? O? X? 선택하세요!"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기적이 이러했을까? 병사들이 둘로 갈라졌다. 그리고 O를 선택한 병사들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1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연대교회에서는 대대적인 예배가 계획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군법당에서는 뭘 하지?'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퀴즈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음보살 이야기〉라는 책을 교재로 선정하고 2주일의 시간을 줬다. '혹시 책 읽기 싫어서 병사들이 아무도 참석 안 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다. 50명 전후로 법회에 참석하던 병사들이 100명 넘게 온 것이다.


그림 · 박구원

아직까지 탈락자는 10명뿐인데 준비한 퀴즈 질문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귀신같이 답을 맞추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법이 위의 말도 안 되는 난센스 퀴즈였던 것이다.

2010년 8월 처음 군종장교로 임관한 나는 병사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먹을 것만 좋아하고, 법회에서는 잠만 자며, 삽질은 잘하지만 설법은 듣지 않을 것이라 착각했다.

병사들은 아프다고 사회에 울부짖는 청년들 중에서도 더욱 고통스러운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는 싫은 선배가 있으면 피할 수라도 있지만 군대에서는 나를 끔찍이 싫어하는 선임과 바로 옆자리에서 매일 함께 잠을 자야 한다. 24시간을 함께 숨 쉬며 군 생활을 같이 해야 하는 원증회고의 바람이 병사들을 휩쓴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구부득고, 친구와 애인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애별리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혹사하는 고통까지… 고통이라면 차고 넘치는 집단이다.

병사들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세 가지다. 첫째, 병사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하지만 전통방식의 법회와 설법은 병사들에게 커다란 문화적 괴리감을 주고, 결국 잠들도록 한다. 셋째, 병사들은 독서를 좋아하고 독서량 또한 엄청나다.

나는 '독서'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익숙한 매개체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 효과는 혁명적이었다. 독서를 활용하기 전, 나와 함께 공부하는 병사들은 50여 명이었다. 하지만 독서모임 '행군스(행복한 군인과 스님들)'를 조직한 후 1기가 100명으로 늘어났고, 2기에 300명을 돌파했으며, 3기에는 500명 가까이 되는 병사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다. 연대병사가 2,000여 명임을 감안할 때 단일 동아리에 500여 명이 가입을 원하는 상황은 군대 내에서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책값이 부담스러워질 만큼 전법효과는 뛰어났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독서'라는 매개체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고, 병사들에게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는 설법을 익숙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배워나가니 병사들은 졸고 있을 이유가 없었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나갔다.

구족계를 받은 비구라면 마땅히 설법을 해야 하고 그 설법은 부처님을 닮아 있어야 한다. 또한 설법능력을 구족한 비구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혼자말처럼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익숙한 수단을 활용해서 부처님의 고귀한 진리를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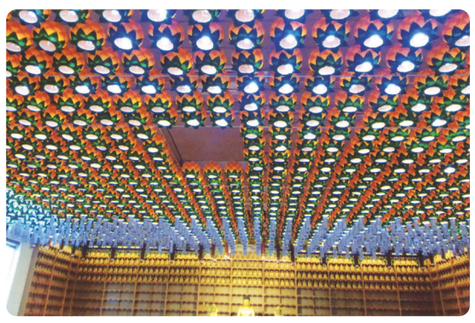

전법대상의 '문화에 한발짝 먼저 다가가는 것' 새로운 세대를 교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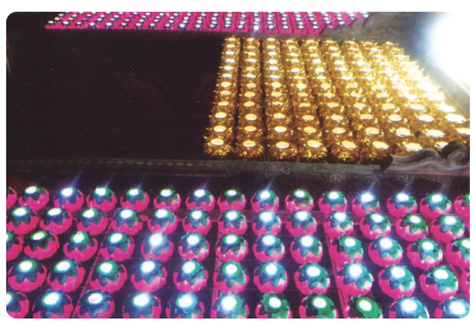
원빈 스님(행복문화연구소 소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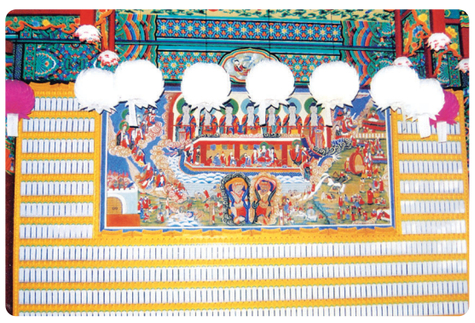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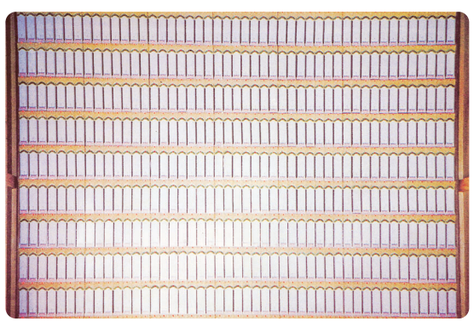

원주 보문사 대법당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